

# '다사다난' 페퍼스, 남은 시즌 승리 기운 이어가나



### 지난 8일 흥국생명 상대 3-1 역전승...시즌 4승 '상대 전적 전패' 정관장·현대건설과 2게임 남아

말 많고 탈 많은 시즌을 보낸 페퍼스가 시즌 종료 를 앞두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2024 V리그 종료까지 단 2경기만을 남겨둔 상황, 페퍼스가 '유종의 미'를 거둘지 주목된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8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18-25 25-22 25-23 25-14)로 승리하며 시즌 4승에 성공했다.

앞선 1-5라운드에서 흥국생명에 모두 패했던 페퍼스는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흥국생명과의 맞대결에서 매운맛을 보여줬다.

이날 1세트를 뺀 페퍼스는 11점을 올린 야스민의 활약으로 2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3세트에서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고, 4세트에선 초반부터 점수 차를 벌리며 흥국생명을 따돌렸다.

주포 야스민은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53.73%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38득점을 올렸고, 박정아와 필립스는 각각 16득점, 10득점을 기록했다. 페퍼스는 이날 16개의 범실을, 흥국생명은 20개의 범실을 냈다.

페퍼스는 현재 4승 30패 승점14를 기록하고 있다. 4승 중 2승을 마지막 6라운드에서 거뒀다. 6라운드 첫 번째 경기였던 지난 2월 23일 한국도로공사전에서 페퍼스는 3-2승리로 길고 길었던 23연패를 끊어낸 바 있다.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내온 페퍼스다. 20연패를 넘어 프로여자배구 통산 최다 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갔고, 동시에 리베로 오지영의 '후배 괴롭힘 혐의'가 불거지면서 코트 안팎으로 어수선한 시즌이었다.

오지영은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페퍼스는 베테랑 리베로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참체된 구단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페퍼스는 지난 2월 28일부로 조 트린지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경수 수석 코치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르는 중이다.

이제 페퍼스에게 정규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두 경기다.

오는 13일 '역대 상대전적 전패' 상대인 정관장을 대전충무체육관에서 만난다.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은 20승 14패 61득점을 기록하며 현재 3위에 자리하고 있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안방에서 치른다. 오는 16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현대건설전이 페퍼스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다.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고 있는 이경수 수석 코치는 "흥국생명전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진 편이다. 무조건 좋은 경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좋은 일인 나쁜 일인 일이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에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마무리를 잘 장식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AI페퍼스가 지난 8일 열린 흥국생명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 전남도,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 키워드는 '첨단기술·꽃'

### 레이저·미디어 퍼포먼스 결합 총 3막으로 프로그램 구성

전남도가 오는 5월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의 키워드를 '첨단기술·꽃'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우기 위한 밑그림 구상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 정약영실에서 5월 14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개최식' 연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도와 목포시 관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

에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과 꽃을 키워드로 장애 무대와 공간을 연출하고 레이저·미디어 퍼포먼스를 결합해 전국에서 모인 장애학생 선수의 희망과 꿈을 키우는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식전공연은 선수단을 위한 환영의 음악과 응원 의 무대로 꾸민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의 환영 무대를 시작으로 장애학생·학부모·특수교사가 함께하는 공연, 장애 극복의 상징적 인물의 격려 멘트 등으로 문을 연다.

주제공연은 총 3막으로 이뤄진다. 막별로 ▲1막 '탄생, 생명의 땅' ▲2막 '마침내 바다' ▲3막 '희망찬 세상'으로 꾸민다. 1막에서는 정각장애 핸드레퍼가 손과 춤을 통해 스포츠로 꿈을 키우는 장애학생을 표현해 흥을 돋운다.

장애인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3막에서는 첨단기술인 레이저와 미디어, 발광다이오드(LED)를 결합한 퍼포먼스로 희망찬 세상을 그린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대중가수로 구성된다.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도 함께 즐길 케이팝, 힙합 등으로 꾸며, 학생들이 열정을 분출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실외 부대행사로 버스킹 공연과 페이스페인팅 체험, 포디움(시상) 체험 등도 함께 펼쳐 개막식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개회식은 오는 5월 14일부터 4일간 목포종합경기장 등 5개 사·군 1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17개 종목에 총 3500여 선수단(선수 1600명·임원 1900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 광주시청 김옥금, 장애인 양궁 월드컵대회 우승

한국장애인양궁 국가대표 김옥금(광주시청·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개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옥금은 지난 7일 두바이 파자에서 열린 장애인 양궁 월드컵대회 결승전에서 125점을 기록하며 체코의 브렌트르바 테레자(116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금메달로 한국 장애인 양궁 국가대표팀 중 유일하게 메달을 획득한 김옥금은 "광주 장애인 양궁 발전을 위해 힘을 쓰시는 감독님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며 "파리 패럴림픽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서 꼭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다가올 2025년 광주 장애인 양궁 세계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광주 장애인 양궁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옥금은 2023 체코 월드컵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의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바 있다. 파리 패럴림픽 최



종 선발전은 오는 5월 28-30일 이전에서 열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스노보드 이상호, 월드컵 시즌 최종전 우승...평행회전 종합 1위

이상호(넥센·가운데)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호는 9일(현지시간)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2023-2024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회전 결승에서 안드레아스 프롬메거(오스트리아)를 0.24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인 이상호는 1월 불가리아 팜포로보에서 열린 평행회전 경기에 이어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시즌 마지막 대회인 이날 결과를 포함해 이상호는 2023-2024시즌 월드컵 평행회전 종목 랭킹 포인트 313점을 쌓아 1위에 올랐다.

이상호가 출전하는 알파인 스노보드는 스노보드 타고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평행회전과 평행대회전의 세부 종목으로 나뉜다. 2명의 스노보드 선수가 나란히 코스를 내려오며 스피드를 겨뤄 이름에 '평행'이 들어간다.

평행회전과 평행대회전 각각 월드컵 경기 성적에 따라 시즌 랭킹을 따지고, 두 종목 성적을 더한 종합 순위도 매긴다.

이상호는 2021-2022시즌 두 종목 합산 순위에서 1위에 오른 적이 있고, 이번 시즌엔 평행회전



종목 1위로 마쳤다.

이날 예선부터 전체 1위로 통과한 이상호는 16강에서 아론 마르크(이탈리아)를 0.09초 차로, 8강에선 롤랑 피슈날러(이탈리아)를 0.13초 차로 따돌렸다.

준결승에서 로크 마르구치(슬로베니아)가 완주 초반에 나서지 못하다가 1월부터 출전한 월드컵 3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여자부 종합 순위와 평행대회전에서 시즌 1위를 확정된 라모나 호프마이스터(독일)는 이날 8강에서 레데츠키에게 패했으나 평행회전에서도 시즌 1위(357점)에 올랐다.

하지 못하며 결승에 오른 이상호는 1월 팜포로보 대회 우승 때 결승 상대였던 프롬메거와 다시 만나 또 한 번 승리하며 시상대 맨 위에 섰다.

여자부 경기에선 정해림(하이원)이 16위로 마친 가운데 우승은 에스터 레데츠키(체코)에게 돌아갔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평행대회전 챔피언인 레데츠키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 전남도체육회 레슬링 윤준식, 국제대회 은메달

전남도체육회 레슬링팀 윤준식이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준식은 지난 7-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달 콜로프-니콜라 페트로프 추모 국제대회'에서 2위에 올랐다.

17개국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윤준식은 예선 부전승을 시작으로 8강에서 우크라이나를 만나 10-2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 또 다시 우크라이나 선수를 상대해 7-2로 이겼다.

결승전에서는 이란을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치다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으며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만조했다.

2024 파리올림픽 쿼터 대회에 대비한 국제대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윤준식은 "목표는 올림픽이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남은 올림픽 쿼터대회에서 꼭 입상해, 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펼쳐지는 아



전남도체육회 레슬링팀 윤준식(왼쪽에서 두번째)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달 콜로프-니콜라 페트로프 추모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10일 시상대 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둔: 파트2
- 3관 패스트 라이브즈, 벅커 게임
- 4관 파묘, 생츠퉈러 2: 퀴카가 너무해
- 5관 윙카
- 6관 파묘, 예수는 역사다
- 9관 둔: 파트2, [위드키즈]브레드이발소: 셸럽 인 베이커리타운, 가벼운 것들
- 7관씨네커플 파묘
- 8관씨네커플 파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2024년 3월 3일 (토)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제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